

"오푸스데이는 회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이단과의 인터뷰 로페스는 브라질에서 화학을 전공하여 1986년에 졸업했으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거행될 오푸스데이 1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를 4년간 의장으로 맡아왔습니다.

100주년을 향해

로마 오푸스데이 100주년을 준비하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들은 누구이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까?

2020년 12월, 오푸스데이 100주년 기념을 위한 준비를 위한 중앙위원회가 설립되어 기념 행사에 대한 첫 번째 성찰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오푸스데이의 카리스마를 통해 각 개인, 교회, 그리고 세상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로마에 거주하며 다양한 문화, 세대,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4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이 팀은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영감을 주는 원칙, 행동 방향, 가능한 프로젝트 및 일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작업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그 위원회는 처음에는 코디네이터인 Juan Manuel Mora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사벨 트로코니스, 산티아고 페레스 데 카미노, 하이메 카르데나스, 마르타 이사벨 곤잘레스, 모니카 에레로. 나중에 Linda Corbi 와 Gema Bellido가 합류하여 로마를 떠난 Marta와 Mónica를 대신했습니다. 나는 위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날짜로부터 3년 전,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일련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는 걸까?

지금까지 우리는 교구장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관리 기관인 중앙 자문 위원회와 총회로부터 세 가지 우선 분야를 파악했습니다. 폭넓은 성찰, 모든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오푸스데이의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은 사회적 영향 이니셔티브의 전문화에 기여하기, 특히 시민권과 교회의 사회 교리와 관련된 측면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100주년이 그 자체의 축하적인 측면 외에도 주로 수행적인 여정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에 이끌려 왔습니다. 즉, 각 개인이 이 과정을 통해

변화될 기회를 갖고, 이러한 변화가 기관에도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로 최근 지역 총회에서 경험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총회는 교회와 사회에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 세계적인 성찰의 공간이었습니다(5만 명이상이 직접 참여). 이러한 개인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오푸스테이 회원들의 복음 전과 활동과 양성 프로젝트에 영감을 줄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민권과 교회의 사회 교리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훈련에 중점을 두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청취 단계가 끝나면 우리는 더욱 즉각적인 준비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제안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지역 100주년 기념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로마에서 우리가 계속할 일의 대부분은 이 지역 팀들을 지원하고 이끌어 100주년을 어디에서든, 그리고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모두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켜, 모두가 100주년의 일부임을 느끼고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를 구하세요

가능한 여러 가지 일(상황을 점검하고, 좋은 일에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 중에서 무엇이 가장 주된 일인가요?

가장 큰 감정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곧 그분께서 교회에 새로운 카리스마를 불어넣으신 지 100년이 흐른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고, 과거 경험에서 배우고, 미래의 모험을 시작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기쁘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저를 설레게 하고 의미로 채워주었던 신의 메시지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밝혀주고 직장, 가족, 여가, 그리고 우리 존재가 펼쳐지는 모든 영역에서 사랑에 찬 반응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발견하고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 바오로 2세의 편지 *Novo Millennio*에서 나온 문구를 떠올립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도와주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현재를 열정적으로 살고, 미래에 자신감을 갖고 마음을 여세요."

외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선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물론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외면과 내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양극화와 수많은 사람들이 버림받는 실존적 주변부 속에서,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쇄신을 요구합니다. 가장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더 큰 대화 능력, 개인주의와 산만함을 극복하는 능력, 모든 사람과 협력하려는 진정한 열망,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다가가는 능력,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한계를 과장하지 않는 겸손함, 그리고 끊임없이 다리를 놓으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개인주의와 분열을 극복하고 더 큰 대화 역량을 요구합니다.

강조된 사항과 관련하여, 저는 이 축하 행사가 성 호세마리아가 약 100년 전에 받아 전파하기 시작한 일과 일상생활의 성화에 대한 메시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의 다른 기관이나 사람들과 함께 행동을 제안하는 것이 새로운 발전 중 하나가 될까요?

방금 전, 저는 오늘날 세계가 양극화와 개인주의를 피하기 위해 타인과 협력하고 교류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방성과 협력의 자세를 100주년을 준비하고 기념하는 데 적용하고자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께서 오푸스테이를 설립하라는 신성한 사명을 받으신 순간부터, 그는 다른 교회 기관들의 지원과 협력을 받았습니다. 물론 마드리드 주교님뿐만 아니라 예수회 회원이었던 그의 영적 지도자, 성 이사벨 수도원 수녀들, 그리고 초기 사제들의 학문적 양성에 참여했던 수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오푸스테이가 역사의 모든 순간에 "교회가 원하는 대로 섬기기 위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푸스테이는 구성원들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참신함은 각 세대의 많은 남녀의 삶에 구현된 카리스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 호세마리아가 오푸스테이의 사목적 현상을 각 개인의 주도성이 가장 중요한 느슨한 조직 집단으로 묘사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구성원은 본당 생활에 참여하고, 직장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가톨릭 신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앙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개선하려는 같은 관심과 열망을 공유하는 선의의 사람들과 함께 활동에 기여하거나 주도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재발견하려는 노력에서 창립자의 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들의 글은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을까요?

100주년을 맞아, 성 호세마리아 대주교는 성 호세마리아의 미발표 저술들을 더 많이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며, escriva.org 웹사이트에 서신과 기타 저술들을 게재했습니다 . 의심할 여지없이, 이 저술들은 오푸스데이 신자들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에게 생생하고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이 글들을 접할 때 마치 오늘날에도 쓰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 글들이 복음과 동일한 그리스도교 메시지로 가득 차 있기에, 마치 씨앗과 같아서 여전히 그 힘과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땅을 비료로 주고 가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100주년을 준비하는 것은 성 호세마리아로부터 직접 도전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길”에서 99가지 요점을 발췌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해설한 “사랑에 빠진 길”(사랑의 길)라는 제목의 신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가톨릭 기도 앱인 “할로우(Hallow)”가 시작한 사순절 실천 챌린지입니다. 올해는 오푸스데이 설립자가 쓴 동일한 책을 사용했으며,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해설과 성찰을 담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

100주년으로 가는 길 "이라는 문서는 오푸스데이 회원들의 제안과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를 요청합니다. 어떤 제안들이 접수되나요?

수천 개의 제안과 함께, 매우 구체적인 아이디어부터 더 광범위한 아이디어, 그리고 전 세계 또는 지역적 적용 가능성을 담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참여를 통해 저는 이 일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페르난도 오카리스 대주교는 오푸스데이가 건물이나 제도적 계획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각 회원의 삶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자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오푸스데이 회원과 그 친구들의 많은 꿈을 보여줍니다. 즉, 특히 가족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그 메시지의 어떤 측면을 더 잘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 사업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제안들 중 다수는 각 지역의 사회적 요구를 인식하고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제안의 근간에는 봉사하고,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우리의 힘으로 치유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때 이를 돕기 위해 헌신하려는 동기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특별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통해 과거를 보다 완벽하게 읽고 각 개인을 지원하는 개선 프로세스를 성숙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00주년이 교회 내 평신도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 즉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거룩함과 복음화에 대한 헌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평신도의 역할이 저절로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0주년이 그러한 역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배려하는 시민, 좋은 부모, 훌륭한 전문가,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본 사업은 교육과 동반을 통해 각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도록 인도하고, 모든 환경에서 평화와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푸스데이 회원들에게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복음, 성령의 영감, 교회의 가르침, 성호세마리아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도전하며, 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바로 그 이유에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동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의 응답은, "변화의 근원"에 희망찬 마음으로, 영향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시대에 대한 향수에 젖지 않고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푸스데이의 향후 100년을 내다보며, 대부분의 회원들이 기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족과 정서 함양에 관한

사업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결혼 관련 문제가 오푸스데이의 형성과 제안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푸스데이 100주년을 맞아, 오푸스데이 설립자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결혼을 신성한 소명으로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참 좋습니다. 또한, 초과 회원과 협력자들이 자신의 삶의 증거를 통해 가족과 부부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도 큰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신성한 소명으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본 사업이 진행되는 국가에서 개최된 지역 총회에서 개발된 대부분의 제안서가 공유하는 우선순위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기여도가 큰 기혼 부부와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구체적인 기여는 모든 부부를 위한 열린 동반과 그들의 상황과 맥락에 맞춘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부부애, 부부 내 소통, 공동 가족 프로젝트 구축, 부부의 일치, 다양성 속의 상호 보완성, 별거 시 지원, 비자발적 독신, 자녀 양육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부양해야 할 노부모 돌봄 등과 같은 주제에 중점을 둡니다.

새 교황 레오 14세께서 당신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나요? 그에게 구체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희망의 희년과 오푸스데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교황 교체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의 유산 중 일부는 교황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련이 있으며, 그 애정을 경험할 때,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유산이자 가족의 전통임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에 살면서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분의 여행, 연설, 그리고 모든 하느님 백성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말입니다. 특히 저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라 더욱 공감했습니다. 로마는 보편적인 마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요. 마지막으로 그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순간들, 제멜리(Gemelli) 병원에 모인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순간들, 그리고 성주간 동안 성 베드로 광장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셨던 순간들을 가슴 깊이 기억합니다.

레오 14세 교황 재위 초기에 교회가 획일성이 아닌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양한 표현과 개성 속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저는 교황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미 그분을 사랑하고 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 재위 당시처럼 제 활동을 통해 그분의 사명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교황 즉위 미사에서 아주 우연히 포르투갈어로 신자들의 기도문을 낭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 교황님의 감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저를 향한 그분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분의 관점에서 광장을 바라보고, 전 세계에 축하 행사를 생중계하는 카메라들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고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해 주시는 교황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보물입니다.

100년 후 여성의 역할

100주년을 맞아 여성의 역할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나요?

지난 100년 동안 세상은 크게 변했고, 그 변화의 일부는 이전에는 여성이 없었던 공간에 여성이 존재하게 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지만, 이에 대한 단일한 해답은 없습니다.

오푸스테이 설립자께서 이 주제에 대한 선구자이시며 여성 리더십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 호세마리아께서는 여성들이 가정, 시민 사회, 기업, 대학,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에 여성들만이 줄 수 있고 그들만의 고유한 것을 가져오도록 부르심을 확인하셨습니다. 바로 여성들의 *부드러운 온화함, 지칠 줄 모르는 관대함, 구체적인 것에 대한 사랑, 날카로운 재치, 그리고 직관력*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남성을 폄하하거나 남성 간의 대립을 초래하지 않는 여성을 위한 발전을 꿈꿉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그들 간의 협력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증진하는 한,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으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는 과정이 오푸스테이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는 오푸스테이에서 이 과정을 경험해 왔습니다. 몬시놀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와 함께 우리 모두는 교황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여정이었는데, 그 동안 오카리스 신부님은 우리에게 작업의 각 단계를 계속해서 알려주셨고, 덕분에 우리는 그분의 요청에 따라 기도로 그분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교황청의 요청에 매 순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제안된 조정안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회원의 제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카리스마와 법적 측면을 조화롭게 병행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오푸스데이 설립자의 평생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왔으며,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께서 100주년을 맞이하는 길에서 이러한 측면이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갖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오늘날 세상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개정 과정에서 교회법전에서 개인 자치단(개인 자치단)에 관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 자치단은 현재 성직자 협회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푸스데이의 정신은 평신도 중심이지만, 사제들도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오늘날 세상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용어 로 표현된 카리스마를 성찰하면서 우리는 현재 매우 중요한 측면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통해 우리는 교회와 사회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타인을 섬기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카리스마의 세속적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기원과의 연결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 응답에 있어 창의적인 충실성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